새 중국 창건 75 주년

경제력 · 국력 · 국제영향력 력사적 도약

8 월 6 일, 산동성 연태항에서 로로선 (滾装船) 이 수출용 차량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드론사진) / 신화넷

국가통계국이 9 일 〈새 중국 75 년 경제·사회 발전 성과 시리즈 보고서〉 (이하 '보고서') 중 하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5 년간 중국의 경제력 · 종합국력 · 국제영향력은 력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여 세계 제 2 대 경제체가 됐다. 1979 년—2023 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 은 년평균 8.9% 확대돼 같은 기간 세계경제체의 3%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

새 중국은 매우 취약한 경제적 기초 우에 세워졌다. 1952 년 679 억원에 불과하던 중국 GDP 는 2023 년 126 조원을 넘어 세계 제 2 대 경제체로 자리잡았다.

1 인당 GDP 측면에서 보면 2019 년 중국의 1 인당 GDP 는 7 만 78 원, 년평균 환률로 환산하면 1 만 158 딸라를 기록해 처음으로 1 만딸라를 돌파했다.

2023 년 1 인당 GDP 는 8 만 9,358 원으로 1952 년 대비 90 배 증가했으며 년평균 성장률은 6.5% 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통계 및 분류 기준에 따르면 2023 년 중국의 1 인당 국민총소득 (GNI) 은 1 만 3,400 딸라에 달했다. 중국은 새 중국 창건 초기 저소득 국가에서 중등 상위 소득 국가로 성장했다.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새 중국 창건 초기 중국 경제총량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1978 년 중국 경제총량은 1.7% 로 세계 10 위 수준이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2023 년 이 비중이 약 17% 로 상승했다. 1979 년—2023 년 세계경제성장에 일조한 년평균 기여률은 24.8% 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최대 상품 무역국, 세계 2 대 소비국, 최대 외환 보유국으로 자리잡았다.

/ 신화넷

외교부

중국의 상해협력기구 순환 의장국 임기내 업무 계획 발표

중국 · 상해협력기구 (SCO) 지방 경제무역협력시범구에 위치한 청도 ·SCO 펄 (Pearl) 국제엑스포쎈터 (드론사진) / 신화넷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은 9 일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SCO) 순환 의장국을 이어받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두가지 중요 문서 제정 ▷실질적 행동으로 하나의 슬로건 (口号) 실천 등 구상을 가지고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위동은 명년 중국에서 SCO 회원국 정상 리사회 제 25 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년 정상회의는 SCO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중국 의장국 임기내 가장 핵심적인 행사이다. 중국측은 우호적이고 단결하며 풍성한 성과를 이루는 SCO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각측의 합의를 도출하고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낼 계획이다.

손위동은 중국측의 의장국 임기 관련 업무에 대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SCO 지속가능 발전의 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중국측은 ▷빈곤감소 ▷식량안보 ▷공중보건 ▷개발자금 조달 ▷기후변화 및 록색발전 ▷공업화 ▷디지털 경제 ▷호련호통 (互联互通) 등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발전 창의 8 대 중점 분야에서 일련의 협력과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두가지 중요 문서를 제정한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이자 유엔 창설 80 주년을 맞아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회원국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무적 협력과 관련된 회원국과의 합의와 의사를 종합해 SCO 다음 단계 발전 전략을 제정할 예정이다.

셋째, 실질적 행동으로 '상해정신 선양 : 행동하는 SCO'라는 슬로건을 실천한다. 중국측은 '행동'이라는 두 글자를 의장국 업무의 키워드 (关键词) 로 삼고 SCO 틀 안에서 100 여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각 분야에서 SCO 의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공동의 안전을 수호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며 민간 교류를 강화하고 기제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 신화넷

중국 · 아세안 인적 교류 동기 대비 1 배 이상 증가

중일한 상호 방문도 크게 늘어

4 월 13 일, 운남성 시쌍반나에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으로 향하는 첫 렬차에서 직원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신화넷

올 들어 8 월까지 아세안 (东盟) 국가를 방문한 중국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5.2% 급증한 1,620 만 5,000 명 (연인원, 이하 동일)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레저, 친척방문이 위주였다.

9 일,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국민의 중국 본토 입경객은 969 만명으로 2023 년 같은 기간보다 113.1% 확대됐다. 대체적으로 관광레저, 회의 및 비즈니스를 사유로 입국했다.

9 일, 강소성 소주시에서 열린 아세안 및 중일한 이민관리정책 고위급 세미나에서 아세안, 중일한 량자는 서로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이자 산업 · 공급 사슬이 심도있게 통합되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 월—8 월, 중국 본토를 찾은 일본 국민은 68 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 늘었다. 회의 및 비즈니스, 관광레저, 친척방문이 많았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356 만 2,000 명으로 173.1% 급증했고 중국 본토에 입경한 한국 국민은 158 만 7,000 명으로 142.1%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주로 관광레저,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중국 본토를 찾은 한국인은 관광레저, 회의 및 비즈니스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 신화넷

13 분 만에 매진 !

중국산 제품 한국 시장서 호황

한국 시장에서 중국 가전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 소가전제품 분야에서 최근 몇년래 중국산 브랜드 상품의 시장 점유률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청소로보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률이 80% 로 제 1 위를 차지했다.

다양한 청소 기능을 일체화한 중국산 청소로보트는 한국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한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 얼마전 출시한 중국산 청소로보트는 라이브 생방송에서 13 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올 3 월 기준으로 한국 국내 1 인 가구가 천만가구, 전체 가구의 40% 를 넘었다. 따라서 규격이 작고 가격이 합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중국산 소형 가전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 유명 가전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소형 가전 시장을 중시하지 않는다. 중국 소형 가전제품의 출시는 한국 시장에서 일부 소비 수요의 빈자리를 메웠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중국 기업 건설 고속도로 프로젝트

중국건축주식유한회사와 중국전력건설그룹유한회사가 건설한 범유럽 5C 주랑 고속도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구간 프로젝트가 일전에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왕복 4 차선 지능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가 약 11 키로메터이며 길이가 1 키로메터에 가까운 헤르쩨고비나 대교가 포함된다.

사진은 9 월 4 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채플리나에서 촬영한 범유럽 5C 주랑 고속도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구간 프로젝트 개통식 현장이다. (드론사진) / 신화넷

중국 기업이 쎄르비아 북부에 건설하는 즈레냐닌 고속도로 프로젝트 기동식이 9 일 쎄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다. 즈레냐닌 고속도로의 간선 길이는 105.4 키로메터, 설계 시속은 최고 130 키로메터이다. 고속도로는 베오그라드, 즈레냐닌, 노비사드를 련결하며 완공 시 쎄르비아 북부를 관통하는 '교통대동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사진은 9 월 9 일, 쎄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찍은 즈레냐닌 고속도로 프로젝트 시공 현장이다. / 신화넷

미국 보잉 우주선

우주비행사 남겨두고 무인 귀환

보잉 우주선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미국 보잉회사의 '스타라이너' 우주선 (星际客船) 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9 월 7 일 새벽 지구로 무인 귀환하여 미국 뉴메히꼬주에 착륙하였다.

'스타라이너' 우주비행선은 6 월 5 일 첫 유인 시험비행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이후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헬리움 가스가 루출되는 등 여러 기체 결함으로 복귀 시간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위험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번 복귀에 우주비행사 탑승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에서 5 개월 내지 6 개월 동안 더 체류하게 되였다.

우주비행사가 탑승하지 않은 '스타라이너' 우주비행선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9 월 6 일 18 시 04 분에 우주정거장을 떠나 지구로 복귀하였다.

/ 중국조선어방송넷